

# “러, 이르면 4월부터 국제대회 참가”

## 세계태권도연맹 “IOC 집행위 결과 따라 결정”

러시아 태권도 선수들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원 WT 총재(사진)는 16일 서울 중구 연명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이르면 4월부터 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IOC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종목 국제연맹에 권고했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과 마찬가지로 WT도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연맹 주관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IOC는 모든 선수가 올림픽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종목 국제연맹에 권고했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IOC는 모든 선수가 올림픽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종목 국제연맹에 권고했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IOC는 모든 선수가 올림픽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IOC는 모든 선수가 올림픽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종목 국제연맹에 권고했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IOC는 모든 선수가 올림픽 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OC는 지난달 말 러시아, 벨

##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6강행

### 전주기전대 축구부, 선문대 상대로 16강전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지난 10~17일 열리는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참가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선전은 한산대접기 42개팀과 통영기 43개팀이 2개 리그로 운영, 결선은 산양스포츠파크와 평림축구장 등 7개 구장에서 결선을 치른다.

전주기전대는 첫 경기 동양대학교와 만나 첫골을 내준 후 두골을 연속 득점했지만 마지막 한골의 실점으로 무승부로 마쳤다. 2차전은 대신대학교를 4대1로 격고, 마지막 상대인 연세대에 후반 초반까지 팽팽한 경기를 보이다가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 3골을 내주며 패했다.

한편 전주기전대는 신입학 예정 학생들과 1학년 재학생들로 구성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

된 선수 2년제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최근 최다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문대학교를 상대로 16강전을 치른다.

이종민 교수는 “어려운 예선전 이후 또 한번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이번 경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해외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 법무부, 공화 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원관리정보시스템, 인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찰단 등 12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아태 마스터스 해외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한다

### 조직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비자발급 간소화 등 협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위원장 김관영)는 해외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 법무부, 공화 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원관리정보시스템, 인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공사, 공항경찰단 등 12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해외 참가선수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비자발급 간소화 △공화 안 내데스크 운영 △공화내 영접센터 운영 △화물(총기, 도검 등), 물품 통관 지원 등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해외참가자들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공화

에서 이루어지며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참가하는 만큼 외국 참가선수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해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3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로 은퇴선수과 아마추어, 동호인 등 개인이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생활체육 국제 종합대회로 세계 각국에서 1만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뉴시스

## 전북현대, K리그1 개막 앞두고 내일 팬들과 '오픈트레이닝'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2023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픈트레이닝을 통해 팬들과 만난다.

전북 구단은 18일 오후 3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오픈트레이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선수단은 이날 팬들 앞에서 훈련하고 새 시즌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3시즌 홈 유니폼을 입고 훈련한다.

오픈 트레이닝은 별다른 사전 신청이나 인원 제한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오후 2시부터 입장 게이트를 연다.

구단은 오픈트레이닝에 오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한다.

주장 홍정호는 “전지훈련 기간 잘 준비했고, 마무리하고 왔다. 팬들과 첫 만남이 설레고 기대된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은 오는 25일 울산문수축구장에서 울산 현대와 K리그1 개막전으로 2023시즌에 돌입한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16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용만 (사)대한속박업중앙회 익산지부장, 황호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를 위한 친절한 익산민들이 협약식이 열렸다.

## 명품 스포츠 관광 서비스 제공

### 익산시, 외식업계 등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성공 개최 협약

익산시가 대규모 전국 대회 개최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명품 스포츠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 익산’ 만들기 기에 나섰다.

시는 16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용만 (사)대한속박업중앙회 익산지부장, 황호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를 위한 친절한 익산민들이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수진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체결되었다.

시는 이번 친절 협약을 계기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함께 스포츠 관광 붐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일선에서 선수단을 맞이하는 숙박업, 외식업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며 “깨끗하고 친절 한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